

차미리사 평전 독후감 공모전

1회

의상디자인학과

2017

양  원

## 또다시 차미리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덕성여대는 정말로 아름답다. 적당한 온도의 따듯한 형광의 햇빛이 빠알간 건물들과 바닥들을 비춰 생명들을 깨워내면,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의 시작을 알리는 형형색색의 것들이 어우러져 피어난다. 또한 힘 있게 뻗어 자라 하늘에 닿을듯한 나무 아래로, 꿈을 그려나가는 학우들의 다양한 색깔들이 학교에 더욱더 아름다운 빛들을 더해준다. 그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를 이야기하며 걸어 나가, 끊임없는 꿈의 이야기로 학교를 넘어 세상에까지 아름다운 빛깔들로 물들게 한다. 이렇게 꿈을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학교를 설립하신 차미리사 선생님의 의지가 녹아들어 있다. 선생님께서 지니셨던 끊임없는 의지와 꿈의 노래가 불꽃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우리들은 또 한번 차미리사 선생님의 의지를 이어가며 미래의 당찬 여성으로서 또 한 번의 차미리사의 탄생을 알릴 것이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불꽃은 이렇게 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점점 더 타올라 우리들의 가슴속에서, 또한 생명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강인한 용기를 심어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되, 네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네가 깨달아 알아라.’라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정신을 일깨워 주면서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불을 지펴주는 것이다.

사실 본인은 작년에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무런 불꽃도 지니지 못한 사람이었다. 꿈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으며 무(無)의 정신 상태로, 그냥 살기 때문에 살았던 것 같다. 얼굴에는 빛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맥이 빠진 사람 같다며 정신 차리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었다. 그런 내가 1년 사이 많이 바뀌었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이 생겼으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용기도 생겼다. 그러더니 생기가 돌았다. 눈에는 빛이 생겼으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 이는 1년 동안 덕성여대를 다니면서 받은 영향 때문이다. 학우들 교수님들 그리고 차미리사 선생님까지. 그들은 나에게 거리낌 없이 가슴속에 가진 불꽃들을 보여주고 나의 꺼진 마음속에 장작불을 피워 주면서 나를 ‘사람’이 되게 했다. ‘사람’이 되어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일들을 이제는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알기만 하는 것은 그 무엇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알고 나서 말하고 실천해야 비로소 잘못되었던 것들이 고쳐지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말을 한다고 해서 틀렸던 것이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이겨내기 위해

선 배워야 한다.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배워야 내가 가진 생각들을 온전히 꺼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배움으로써 알기 때문에 용기가 생긴다. 이를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셨기에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께서는 그때의 현실만 본 것이 아닌 미래까지 계획하며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때 선생님께서 소외된 가정의 부인들을 모아 가르치시기도 했고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여성 인권을 위한 교육이란 한순간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선생님이 내다보셨던 미래를 향한 그림은 아직도 저 멀리 도화지처럼 펼쳐져 있으며, 이제 선생님께서는 살아 계시지 않으니 남아있는 우리가 또 다른 미래를 그려갈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화지를 쥐여 주어야 함을 또 한 번 다짐하게 된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선생님의 평전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피부로 느꼈던 건 선생님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이었다. 선생님은 쉬지 않고 변화하기 위해 고치를 풀고 또 풀며 새로운 나비를 펼쳐내기 위해 노력하셨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점은 그 나비는 선생님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치 속에 갇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생님은 운동하셨고 그들을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날게 하셨다. 더 나아가 일제 강점기 때 억압되어 있었던 우리나라에까지 빛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셨다. 그 예로 독립운동 조직인 대동 교육회에 참여하여 안창호,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신문을 발간하셨고, 또한 여성들을 위해 여자 야학 강습소를 설치하여 청년교육을 하고 동시에 3.1운동 당시 비밀 연락망의 참모로 활약하며 더욱더 그들의 교육에 불태우면서 혼자서는 했으리라 하기 믿기 힘들 만큼의 활동들을 해내셨다. 야학 강습소는 1925년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었고 근화 여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훗날 지금의 덕성여자대학교가 되었다. 선생님은 눈을 감으시는 순간까지 여성교육에 힘써 봉건적인 사회 질서 속에서 여성 해방을 위해 노력하셨다. 이렇게 끊임없이 선생님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튼튼한 나비가 되어 세상을 날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물론 위의 활동 외에도 많은 활동들을 해내시며 '일제 강점기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라는 타이틀이 그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위인으로서 여성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 나 또한 생각은 머리

에만 있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또한 입으로 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의 뜻은 지금의 나로, 아니 우리로 남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선생님의 뿌리를 가진 우리로서 그 의지는 더욱더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선생님의 불꽃을 이어받은 우리와 미래의 불꽃

선생님의 사회의 잘못된 통념에 반대하는 지성적이고 적극적인 생각들이 선생님의 운동 활동에 고스란히 녹아있듯이, 지금의 덕성여대 학생들은 선생님의 의지를 이어받아 또 다른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이 내가 우리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었다. 단순히 선생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을 가두었던 통념들을 이겨내고 진정한 여성운동가가 되신 선생님의 성장과 이뤄내신 것들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당시 금기되었던 사상에도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믿고 행동하는 선생님이셨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옳았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셨고,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가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아가셨다.

이런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혹은 해야 하는 것들을 정말로 표현해야 하는지 갈등할 때가 많다. 이렇듯 매일매일 '틀'과 '자신' 속에서 수백 번 고민을 한다. 그런 나에게 선생님께서는 하고 싶은 것들을 거침없이 해내라고 야단치시는 것만 같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너의 생각과 행동은 옳은 것인가? 끊임없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통해 '답'을 찾았을 때 나에게는 알 수 없는 확신과 용기가 생긴다. '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낼 수 있구나!'. 작은 불꽃이 피워 올라 용기가 되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다르듯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또한 다르다. 나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성인으로서 성장해나갈 것이다.

여자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이 책을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이제까지 몰랐었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의지를 찾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바보는 태어나지 않았다. 고로 나도 당신도 그리고 모두가 해낼 수 없는 일은 없다. 선생님께서 주신 꺼지지 않는 불꽃을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건네 주어야 할 차례이지 않은가?